

# 영화가 상상한 미래 사회의 풍경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 석사)



## 들어가는 말 : 영화가 그리는 미래 사회 풍경

영화는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앞날을 예견하는 예언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화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풍경이 대부분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많은 과학자들이 영화를 통해 영감을 얻어 미래를 준비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영화와 미래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의 일상과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과학기술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구현은 가능한지, 그러한 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절망을 가져다줄지 이전보다 더 가깝게 고민하게 되었다.

영화는 스토리텔링 화법과 이미지라 하는 예술방식을 통해 다양한 인류 고민거리와 이에 대한 상상력을 대중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좋은 SF 영화를 만나는 일은 참 행복한 일이다.

나에게 미래 기술사회에 대한 통찰을 안겨주고, 무한한 상상력을 안겨준 4편의 영화를 통해 미래 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 (1) 영화 <Her>를 통해 근 미래의 풍경을 엿보다

웬지 가장 조만간 실현될 것 같은, 그래서 낯설지 않고, 멀지 않은 근 미래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영화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Her>가 아닐까 싶다. 영화에서는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지 않고 근 미래라는 설정을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아내와 이혼한 한 남성이 인공지능 OS와 사랑에 빠져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영화 주인공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아내(루니 마라)와 별거 중이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스칼렛 요한슨)를 만나게 된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해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조금씩 행복을 되찾기 시작한 '테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Her>

도르'는 점점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사람보다 인공지능 OS와 더 깊은 교감을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인공지능 OS와의 사랑이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갖을 수 있다. 하지만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리 현대인의 풍경을 볼 때, 영화의 설정이 그리 무리한 설정이 아님을 생각하게 된다.

아내는 자신과 결별하고 고작 인공지능 OS에게 사랑을 느끼며 새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테오도르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이 진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짝하긴 하네.." 그녀의 말은 사람과의 갈등을 회피하고 혼자 스마트폰에 빠져 작은 기계와만 교감하는 현대인을 향한 말처럼 들린다. 인공지능 OS는 대화의 기술이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는다.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유머러스하고, 건설적인 소재로 대화를 이끌어간다. 심지어 연인과의 관계 못지 않은 유쾌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영화 속에서 테오도르와 인공지능 OS인 사만다의 데이트 장면은 영화의 명장면 중 하나이다. 영화는 둘의 교감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까지 하다. 심지어 사만다는 테오도르와의 더 깊은 교감을 위해 '육체 없음'을 극복하고자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시도하는데 이 장면 역시도 그럴 듯한 미래의 모습이다.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근 미래에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고 대화를 나누기보다 인공지능 OS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 성숙의 길이 인공지능 OS와의 관계 속에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영화의 마지막은 이전보다 더 큰 딜레마를 보여준다.

사만다가 테오도르, 단 한 사람만의 ‘그녀’가 아닌 것이었다. 사만다는 어느새 진화하고, 확장되어 수천 수만 명의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 OS인 ‘그녀’는 마치 신 같은 존재로 느껴진다. 사만다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 능력이 약해지거나 정신이 지치지 않는다. 그녀는 완전하면서 진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간다. 마치 신처럼. 영화는 어쩌면 인공지능 OS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테오도르가 그녀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때 항상 채광이 아름답고 강하게 비춘다. 그 채광은 단순히 멋진 화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빛과 같이 온 세상에 편재하는 신과 같은 ‘인공지능 OS’의 존재감을 보여주고자 영화에서 투입한 미장센(mise-en-scene) 기법이다. 만약 강한 인공지능이 실현 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유하고 진화하는 로봇이 발명된다면 그 로봇은 분명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인간을 조종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2) <블레이드 러너>, 시뮬라시옹(Simultion)의 시대  
미래 사회의 디스토피아적인 풍경을 우울하면서도 우아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이다. 이 영화는 1980년도 작품인데, 서기 2019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해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와 영화 속 시간은 2년 남짓 밖에 차이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영화에서 그리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있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풍경은 언젠가 찾아올 내일처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그려져 있다.

2019년 11월 LA. 400층이나 되는 높이의 건물들로 가득 찬 거리와 끊임없이 번쩍이는 레온등과 광적 행위가 만발한 도시, 지구의 파괴와 엄청난 인구증가로 인해 다른 행성으로 식민지 이주가 본격화된다. 한편, 2주전 남자 셋, 여자 셋이 식민행성에서 탈출, 23명을 죽이고 우주선을 탈취하여 지구로 잠입한다. 이들은 외견상 진짜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한 복제 인간 리플리컨트이다. 때문에 수명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두목격인 전투용 로이 베티(Roy Batty: 룯거 하우어 분)와 역시 전투용 리온(Leon: 브라이언 제임스 분), 살인 훈련을 받은 조라(Zhora: 조안나 캐시디 분), 식민행성 군인 클럽 소속의 위안부 프리스(Pris: 다릴 한나 분)가 그들이다. 이에 경찰(Captain Bryant: M. 에머트 월쉬 분)은 복제인간을 처단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 블레이드 러너인 데커드(Deckard: 해리슨 포드 분)를 호출한다.

영화가 예상한 시기는 이르지만 언젠가는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공간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르겠다. 실제로 NASA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 있다. 한국에서 SF 천만관객의 이목을 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역시도 그와 같은 설정을 가지고 있다. 칼세이건은 “이 넓은 우주에 지구 밖에 생명이 없다면 엄청난 공간 낭비다.”라고 말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지구라는 작고 아름다운 행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선택하신 행성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구는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된 행성이기에 수명이 다하면 버리고 떠나도 되는 곳일까? 조만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



로운 행성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사실 영화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과 복제인간의 모호한 경계'다. 타이렐사는 인간과 구분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인간보다 더 진화된 복제인간을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행성의 식민지화를 위해 그저 노예로 이용된다. 그들은 그저 편리함을 위해 도구로 쓰여진 후 버려질 뿐, 그 어떤 사람다운 대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복제인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바로 처형의 명령이 내려진다.

여기서 영화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인간이 복제인간을 너무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 복제인간인 로이가 그를 살려주고 자신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는 자신도 기억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시와 같은 대사를 남긴다. "난 네가 상상도 못할 것을 봤어. 오리온 전투에도 참가했었고, 탄호이저 기지에서 빛으로 물든 바다도 봤어. 그 기억이 모두 곧 사라지겠지. 빛 속의 내 눈물처럼...곧 죽을 시간이야."라고. 그의 독백은 묘한 울림을 준다. 더 흥미로운 점은 복제인간인 로이가 죽을 때에 비둘기가 날고, 손에 커다란 못이 박힌 상태여서 마치 예수를 떠오르게 한다는 점이다. 영화는 로이가 인간을 살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구원자 예수의 모티프를 가져온다. 그럼으로써 복제인간 로이를 더욱 영웅처럼 신성시한다.

영화는 과연 '인간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들은 사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감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식된 것이지만 삶의 기억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복제 인간을 처형해야 하는 임무를 받는 데커드가 복제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딜레마적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분명 이 문제에는 다양한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딜레마에 처하

게 하는 주제일 것이다.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는 지금의 시대를 '시뮬라시옹'의 시대라 불렀다. 이는 "모방된 것이 실물보다 더 실물답다."라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디지털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복제 인간 구현이 가능한 시대에는 과연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된다. 오히려 원본보다 복사본이 더 완전한 형태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슷한 소재의 영화인 <아일랜드>에선 복사본인 복제인간이 원본의 주인을 없애고 삶의 주인이 되는 아이러니를 화끈하게 보여준다. 시뮬라시옹의 의미를 더 확장하면, 현실(Reality)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디지털 공간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조만간 Second World를 창조할 것이고, 그 세상은 원본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한 실재감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위쇼쇼키 남매가 만든 영화 <매트릭스>는 이 시뮬라시옹의 모티프를 잘 보여준다. 주인공 네오는 종종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데, 사실은 그 꿈이 실제 세계였고, 현실이라고 여겼던 삶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허상의 세계였다. 영화처럼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이 허상의 디지털 세계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시뮬레이션 된 세계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는가.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독특하게도 미래 사회의 모습을 아주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신을 더욱 바깥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더욱 화려한 세계를 건설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갈수록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은 해소되어지지 않고, 사회의 혼란은 더 극심해지

는 것 같다.

과학 기술의 무한한 발전은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것은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할까? 더 절망적으로 만들까? 영화 <블레이드 러너>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술 발전이 오히려 암울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러니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 (3) 로봇과 인간의 경계, <공각 기동대 : 고스트 인더 셸을 읽다>

영화 <공각 기동대>는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원작인 애니메이션보다 더욱 과감하게 로봇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그리고 있다.

강력 범죄와 테러 사건을 담당하는 엘리트 특수부대 섹션9.

인간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탄생한 특수요원이자 섹션9을 이끄는 메이저(스칼렛 요한슨)는 세계를 위협하는 음모를 지닌 범죄 테러 조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첨단 사이버 기술을 보유한 ‘한카 로보틱스’를 파괴하려는 범죄 테러 조직을 막기 위해 엘리트 특수부대 섹션9이 나서기 시작하고 사건을 깊이 파고들수록 메이저는 자신의 과거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스스로의 존재를 찾기 위한, 그리고 세계를 구하기 위한 거대 조직과의 전투가 시작된다.

영화를 보면, 미래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인간의 뇌를 USB처럼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간의 기억을 다운로드 하거나 제거하는 일이 가능하다. 심지어 뇌만 유지한 채, 로봇의 몸을 입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어진 인간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저이고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다. 그녀는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을 저지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루퍼트 샌더스의 <공각 기동대 : 고스트 인더 셸>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뇌’라는 것은 과학 기술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과거에 마음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과 신에 대한 감각 등 그 모든 것이 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은 인간의 감정이 뇌 속에서 어떻게 조종되는지를 재미있게 잘 보여준다. 많은 뇌 과학자들이 그 애니메이션이 팩트에 근거한 스토리라며 높게 평가했다.

뇌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라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의 몸을 로봇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개인의 정체성은 유지된 채 노화되거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영화는 그런 일이 가능한 미래를 전제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미래형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해진다.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로봇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될까? 그것이 진화된 인간의 모습의 끝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그저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하는 끝없는 기술의 욕망은, 결국 인간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 초월적인 신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맞닿아 있다. 로봇과 결

합된 인간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처럼 미래의 기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과는 좀처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 자체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화 <공각기동대>가 그리는 미래의 풍경은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많이 닮아 있다. 건물은 더 높아지고 화려해졌으며 차가 날라다니고 곳곳에 VR 광고가 대중화되어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도시 구석구석은 낡고 폐허와 같다. 두 영화가 미래의 풍경을 묘사하는 미장센이 유사한 건, 아마도 원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가 이후의 SF 영화에 많은 영화를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가 그리는 미래의 인간관이 너무 낮설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런 SF 영화를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감상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 맺는 글 : 영화 <모던 타임즈>를 통해 보는 미래 기술 사회 속 인간

과학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 30년 동안 이런 기술적 진보는 어마어마하고, 또 앞으로 과학 기술이 더 발전하여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는 더욱 궁금해진다. 아마도 영화에서 흔히 보듯 인공지능 로봇이 더욱 대중화되어서 인간이 서 있던 많은 자리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또 인간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몸이 부분적으로 로봇과 결합한 '트랜스 휴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종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과학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하는 가운데, 단순히 환호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 시대의 현주소를 인문학적으



찰리 채플린 감독의 <모던 타임즈>

로,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성찰해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점에서 그러한 기술 시대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할지,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영화 <모던 타임즈>는 기술이 효율성을 '선'으로 여기고 인간의 기술력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시대에 인간이 처한 위기를 잘 보여주는 영화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 처한 주인공을 통해 인간으로써 끝까지 지켜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아주 오래 된 흑백 영화이지만, 재미도 있으면서 기술 시대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는 과학 기술을 맹신하는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것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최첨단 급식기를 실험하는 장면이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급식기가 알아서 동그란 식탁을 돌려가며 음식을 입 속에 넣어준다. 그런데 기계의 갑작스런 고장으로 음식이 아닌, 나사를 입어넣어주고, 옥수수로 입을 가격격하기까지 한다. 결국 앉아있던 남자는 급식기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짧은 코믹한 장면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고장이 날 때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크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

는 명장면이다.

영화 속 주인공 남자는 근대화라고 하는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초반에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인간이 아닌, 거대한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여겨지게 되고, 결국 너트에 집착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된다. 결국 그는 그 시스템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신병원과 감옥을 오가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그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는 완전히 이탈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보다 약한 고아를 대신해 자신이 죄의 누명을 덮어 쓸 만큼 인간본연의 인간성만큼은 놓치지 않는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영화의 끝에서 결국 노래와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된다. 시스템에서 이탈됨이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게 하였고, 더욱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삶을 더욱 빈곤하게 하고, 심지어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끌기도 한다. 모든 기술은 축복이자 저주이다. 아마도 그래서 대부분의 SF 영화들이 미래의 풍경을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고 있는 지 모르겠다. 미래에 과학 기술이 엄청난 진보를 이루어 기술로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인공지능 로봇으로 효율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며, 또 새로운 세컨드 월드를 만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크고, 인간의 비인간화는 점점 심해지며, 사회 질서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기술의 진보가 인간 외적인 모습은 진화시켰지만, 더 근원적인 인간성의 측면에서는 퇴화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요즘 4차 혁명 시대를 운운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담론들이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며 어떻게 미래를 맞이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너무도 빠르

게 과학 기술이 진화하고, 로봇이 인간의 많은 생산 활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할 것은 무엇일까? 수많은 SF 영화를 보며 느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이 아닐까 싶다. 사랑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창조하는 능력 말이다.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속성마저 잃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모든 자리를 로봇에게 내어주고, 인간은 로봇의 노예 자리로 뒤바뀌게 될지 모른다.

유명한 화가인 폴 고갱의 작품 중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림이 있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를 볼 때면 폴 고갱이 던졌던 질문을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하게 된다. 과연 인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한 인류 끝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행복하고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성찰 없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기술 사회는 인류의 미래를 더 어둡게 할지 모른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정해진 삶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딘가 어리석어보이지만,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인간의 삶의 모습일지 모른다.



글 | 박명호

서강대 언론대학원 미디어교육 석사. 영화와 신학,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 현재는 중고등학교와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영화예술 교육강사로, 그리고 독립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